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APRI)' 공식 출범 미래 광융합기술 이끌 APRI 2050 비전 선포

- 세계 최고 수준의 초강력레이저 시설 개발·운영 성과 및 레이저 기술 기반으로 우주·국방·의료·반도체 분야 선도할 초강력 레이저·광기술 전문기관 도약 선언
- 광융합 산업 발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 체결도... 임기철 총장 "국가의 차세대 광산업 육성과 함께 글로벌 난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세계적 광기술 연구기관 도약할 것"



▲ GIST가 기존 '고등광기술연구소'가 '고등광기술연구원'으로 공식 승격된 것을 기념하여 5월 9일(금), 개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5월 9일(금), 기존 '고등광기술연구소'가 '고등광기술연구원(APRI, 원장 고도경)'으로 공식 승격된 것을 기념하여 개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인철·민형배 국회의원과 기초과학연구원(IBS) 노도영 원장, 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 한국광기술원 신용진 원장, 한국광융합진흥회 김동근 부회장, 한국물리학회 윤진희 회장(인하대 물리학과 교수), 한국광학회 이상민 회장 등 주요 기관 인사들과 50여 개 지역 중소기업 대표, 10여 개 국방·방산업체 임원들이 참석했다. GIST에서는 임기철 총장을 비롯해 정성호 연구부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등 약 1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고도경 원장(GIST 물리·광학과 교수)은 기념사에서 "지금까지 축적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초강력 레이저와 광기반 기술을 선도하고 우주·국방·바이오·양자정보·에너지 등 미래 전략 분야 연구에 집중하겠다"며 "국가의 차세대 광산업 육성과 함께 글로벌 난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세계적 광기술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포스트 광산업 기술교류회'에서는 고등광기술연구원의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로 레이저 전문업체 (주)루메닉스(대표 신우진·고등광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가 소개되었으며, 손익부·김기현·유난이·김복현 박사 등 고등광기술연구원 연구진이 직접 참여한 '오픈 테크(Open Tech) 세션'을 통해 보유 중인 특허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대학-기업 간 실질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연구원 출범을 알리는 제막식을 시작으로, 개원 선언과 내·외빈 소개, 조인철·민형배 국회의원과 IBS 노도영 원장의 축사, 연구원 연혁 소개, 'APRI 2050 비전' 발표, 광융합기술산업 발전 협력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업무협약식, 고등광기술연구원 초대 소장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해 고등광기술연구원의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승격 기념 개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축사를 통해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은 광과학과 레이저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력을 인정받은 기관"이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대전환 시기를 맞이한 지금,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도 "광기술은 반도체·나노·초미세가공·국방·레이저 시스템 등 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분야"라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도영 IBS 원장은 축사에서 고등광기술연구원 설립 초기부터 성장해 온 과정을 함께 지켜봐 온 소회를 전하며, “앞으로 더 큰 독립성을 갖게 된 만큼 예산과 인력 등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IBS 광클러스터 연구단과 고등광기술연구원이 협력해 국가 핵심 기초·응용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철 GIST 총장은 “그동안 고등광기술연구소로 쌓아 온 여정을 바탕으로 ‘고등광기술연구원’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도약하게 되어 뜻깊다”며 “**광기술은 반도체·바이오·에너지·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IBS 연구단과의 협력과 학제 간 교육을 통해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부터 응용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광기술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겠다**”며 “**GIST의 ‘Up & Together’ 정신 아래 연구와 산업을 연결하는 허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 임기철 GIST 총장이 고등광기술연구원 승격 기념 개원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융합진흥회가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광융합 산업과 기술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첨단 광기술 분야의 연구 협력과 기술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광융합기술·산업 발전 협력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광기술원 신용진 원장, 고등광기술연구원 고도경 원장, 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 한국광융합진흥회 김동근 부회장

이날 발표된 'APRI 2050 비전'은 고도화된 광기술과 초강력 레이저 기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광융합기술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비전은 향후 국내외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광융합 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 로드맵으로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광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초대 고등광기술 연구소장 이종민 박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 고도경 APRI 원장이 초대 고등광기술연구소장인 이종민 박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